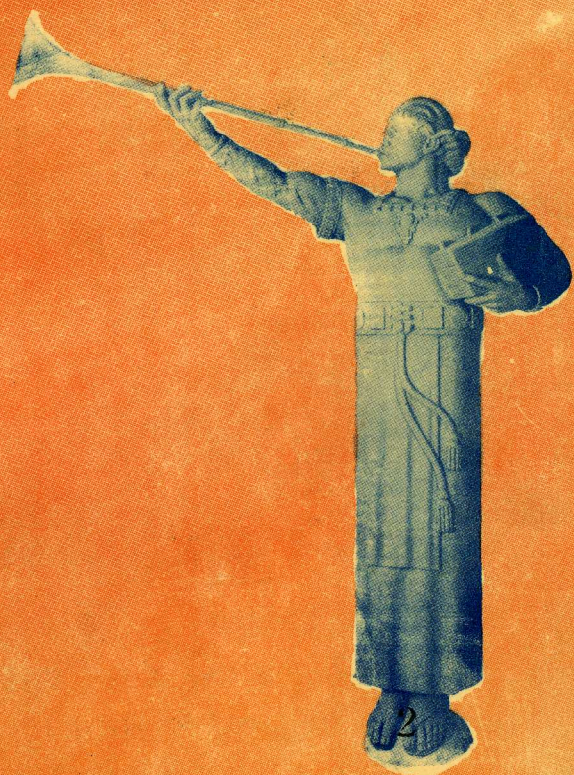


1967.2

성도의 벗



목차

성 화	1
권두언(선교부장)	2
예언자 말씀(대관장)	5
교회가 제일	10
내가 받은 축복(이민관)	15
시	19
선교사 초대(한국편)	20
호막 상식	23
성도의 벗 확보	26
귀환 선교사 소식	31
역원을 찾아서	32
성장하는 한국 선교부	35
계시관	37
우리의 형제 조지 톰니(송태섭)	38
삼청에서의 물몬 전시 도입	42
계보활동의 필요성(김사원)	44
성도의 벗 퀴즈실	47
뿌리는 뱀고 가지는 자란다.(손하선)	48
지부 소식	49
멀리 있는 성도들	50
편집 후기	51

* * * *

표지설명: 한국어판 물몬경이 출판되어 나오는 2월. 물몬경의 금판을 세상에 전해준 모토나이 친사는 하늘에서 나팔을 불며 이 땅의 영들을 부르고 있다.

聖 畫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 마태복음 5장 48절

우리의 첫째 조상을 속인 자요, 스스로 빛의 천사로 변장하여 인간들을 선동하여 저들로 은밀한 살인절사를 만들게 하고 온갖 은밀한 어둠의 일을 행하게 하였으리라."고 하였다. (니파이 2서 9장 9절)

하이람 페이지(교섭 28장)의 시대로부터 다른 여러 시기에, 교회의 회원들에게 망상적인 영들의 움직임이 나타났었다. 때때로 이것들은 법적으로 인하여 고약한 사기꾼에게 쉼사리 잡아 떠힌 사람들에게 임하였다. 또 다른 시기에는 교회의 의식과 규례를 엄격하게 지킴을 스스로 자부한 사람들이 거짓 영들로 인해 길을 잃게 되었고 이러한 거짓 영들은 거룩한 근원에서 나오는 것과 너무나도 비슷한 영향력을 구사하기 때문에 교회의 의식과 규례를 엄격히 지킨다고 자부하는 사람들까지도 근본적인 차이를 판별하기 어려워져서 그 거짓 영들이 "바로 선택된 자"로 생각한다. 다만 미신적이거나 무지한 사람들만이 그러한 귀신(소위 한국에 있어서의 도깨비)에게 사로잡힐 뿐 아니라 주의하지 않는다면 흔히 지적이고 유능한 사람들도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정도의 것은 확인할 수 있다. 시험, 꿈, 방언, 예언, 감명, 또는 어떤 특수한 영감의 은사가 교회의 합당한 계시와 조화를 이루지 않는 것을 내포하고 있거나 정당하게 인정받은 지도자의 권능으로 결정된 것에 위배될 때, 그것이 얼마나 그럴듯하게 보이는 간에 말일성도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가 아님을 알 것이다. 또한 말일성도들은 교회의 인도를 위한 지시는 우두머리를 통해 계시로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첫째 원칙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충실한 모든 회원들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그리고 감리하도록 임명받고 성립된 범위내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성령의 영감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러나 교회의 우두머리를 통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계시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권위있고 신빙성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한 회원이, 주님으로부터 지부장이나 지방부 및 선교부 역원에게 말씀하시는 그들의 책임 수행에 관한 꿈이나 계시를 결코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아담의 시대로부터 1967년의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회 역사는 험잡꾼이나 광신자들, 때로는 훌륭한 수단으로 사기하는 회원들이 주장한 가장된 많은 계시들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들은 그들이 받아들일 다른 사람을 모색함이 정당한 것으로 믿었고 그러한 경우 모두 그로 인하여 실망과 슬픔과 재난을 초래하였다.

나는 이 기회에 한국에 있는 충실한 모든 성도들에게 확립된 신권 권능을 불명예스럽게 하거나 과학적인 참된 원칙들을 반박하는 어떤 영이나 세력에 이끌리지 않도록 호소하는 바이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의 행정을 위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받지 못하게 된다. 성령은 자신의 나타냄을 도순되게 하지 않는다. 진리는 언제나 그 자체와 조화를 이룬다. 주님께서 임명하신 통로, 즉 그의 예언자, 사도 그리고 합법적인 신권 지도자들을 통하여 주님의 교훈은 언제나 안전하게 이어질 수 있다. 친애하는 성도들이여,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받아 이득을 보도록 하라!

(한국 선교부장)



The Power of the Priesthood

데비드 오. 맥케이

"신권의 힘"

신권은 신회의 본래의 것이다. 신권은 그 근원을 영원하신 아버지 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둔 권위요, 권능이다.

우리는 미국 대통령들이 소유했던 권리와 특권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의회의 권리를 논하고 미국 최고 사법재판소의 권세를 이야기하는 중에 그러한 힘과 권세의 본질을 숭사리 이해한다. 결국 이러한 것들은 신체의 조직을 갖춘 사람에게 그 근거를 둔다.

신권의 본질을 살펴봄에 있어 우리는 하나님 이상의 혹은 그 이후의 무엇을 생각하려는 것은 무리다. 신권은 하나님에 그 근거를 두며 하나님으로부터 발산되어야 하는 것이다.

신권은 하나님 안에 그 존재의 원천을 같이 하며 하나님께서만 다른 사람에게 전하실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신권을 소유할 때 인간은 그 권능을 위임받는자가 된다. 참으로 이 세상에는 자기 스스로에게 신권의 권위와 권능을 부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卷 頭 書

"사탄은 기적을 행할 수 있는가?"

말일성도가 속을리 있겠는가?

개인이 받았다는 계시에 속지

않도록 우리는 경계해야

하지 않겠는가?



裏 一 文

"너희가 속지 아니하도록 모든 일에 규범을 주리니 이는 사탄이 땅에 널리 퍼져있어 사람들을 속이러 다니기 때문이니라." (교리와 성약 52장 14절)

사탄이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고 빛의 천사처럼 나타날 수 있다는데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러한 형태로 사탄은 열쇠들의 회복을 반대하기 위하여 서스퀘어나 강독에 나타났으며, 미카엘에게 발견되어 그의 계획은 좌절되었다.(교리와 성약 128장 20절 참조, 129장 8절 비교) 리하이의 아들 야꿈은 그의 가트침에서 주장하기를 만약 속죄가 없었더라면, 우리의 영들은 "저와 같은 악마가 되며 악마의 천사가 되어 하나님 의 면전에서 내어 쫓기며 거짓의 아비와 함께 하며 그와 더불어 비참한 지경에 빠져 진실로 저와 같이 되리니, 저는

어떤 정부의 대사가 자기에게 허가된 권한으로 정부를 대표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듯 합당한 인간은 자기에게 위임된 권위와 권능의 은사로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일단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권능을 허가 받은 자에 의하여 권위가 주어졌을 때 그 신권은 "권위와 권능"이라는 한계내에서 사명을 이행하게 된다.

신권의 권위와 권능으로 행사되는 모든 공식 행사는 마치 그것을 집행한 사람이 행한 듯이 여겨진다. 신권은 "권위의 원리"이다. 신권의 원리의 관념상의 모습을 머리속에 그려 본다는 것이 만약 불가능하지 않다면 그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다. 우리는 다만 그것이 인간의 행위를 통하여 구현되어있을 때 이를 풀어 설명할 수 있을 뿐이다. 그 원리란 마치 자연 만물의 모습을 결정하는 요소가 그 본질과 유래를 혹은 존재를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에 비교할 수 있다. 나는 이미 신권이란 그뿌리를 전지전능하신 이에게 두고 있다고 언급한바 있다. 그러므로 신권의 본질은 영원한 것이다. 신권은 생애에서 그 발현을 구사함으로써 권위의 발전을 가져오는 것이다. 우리는 신권의 권능을 실제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축적시켜둔 둘에 비교할 수 있다. 그러한 힘은 활동능력이 들이나 골짜기나 정원이나 행복한 가정에 역사될때 위대한 것이 되며 선한 것의 산물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류에 관련된 이 신권은 이것이 인간 생활에서 가동되어 인류의 마음과 요구를 하나님께로 돌리께 하고 이웃에 대하여 할 당한 봉사를 시도하게 할 때 비로서 힘의 원리가 된다.

엄격히 말해서, 신권을 위임된 권세라는 입장에서 볼 때

개인의 요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특정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성스러운 신권에 의하여 임명된 자들은 정원회를 이룬다. 그리하여 이 신권은 개인에 있어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단체를 통하여 그 발현을 시도한다.

정원회는 남과 또 서로를 알고 사랑하고 도움고자하는 요구를 만족시키는 기획이 된다. "산다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만의 독존을 뜻하지 않는다."

남자 회원으로 연령이 12세 이상이면 정원회 회원으로의 자격을 갖는다. 정원회는 12명의 집사 정원회, 24명의 교사 정원회, 48명의 제사, 96명의 장로, 70명의 70인등의 정원회이며 각 스테이크에는 전도체제하에 대제사의 집합을 둔다. 그리고 정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인원이 없는 곳에서는 신권별 집합체를 둔다.

와드에는 집사, 교사, 제사의 정원회가 있고 스테이크에는 장로, 칠십인, 대제사의 정원회가 있다.

이의 각 정원회는 이행해야 할 임무를 갖는다. 회장단은 정원회 회원들과 함께 앉아 그들의 임무와 정원회 사업을 가르쳐야 할 임무를 갖는다. 제사와 대제사의 정원회를 제외하고는 정원회의 책임을 감독이나 스테이크 감독단이 지지 않는다.

정원회가 기능을 발휘하자면 교회 조직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인류와 관계하신 역사를 살펴볼 때 교회가 정규 조직을 갖추지 못했던 경우 선지자 개개인은 성 신권을 소유했으므로 그런 상태에서 신권의 정원회가 조직되었었던 적은 없었다. 그러므로 이를 통하여 신권의 권세를 함당하게 역사

하고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이다. 완전한 신권의 권세가 땅위에 존속하는 한 교회의 조직은 마땅히 유지되어야 한다. 바꿔 말해서 성 신권의 거룩한 권세 없이는 참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

세상은 여러 형태, 여러 종류의 조직 및 기구로 가득차 있으며 그 이상을 달리 갖는 여러 교회의 조직으로 가득차 있지만 그 개개인이 가졌다고 주장하는 바 요소, 곧 영원한 진리의 요소를 참되게 생활하는 자만이 다만 자기들의 것을 존속시킬 것이다.

인위적인 조직체는 계속적으로 발생하여 잠시동안은 존재하다가 멸절된다.

영원한 권세와 성 신권의 권능을 갖고 그 안에서 생활하는 교회만이 영원을 이겨낼 것이다.

1830년이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수 많은 종교, 교육, 경제 기구가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병든 사회에 치료요소으로써 공헌하였었다. 그러나 그들은 잠시 빛을 내다가 몰락하였다. 다른 기구도 이와 같은 전철을 밟아 그들이 치료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질병을 그 뜻대로 효과적으로 다스리지 못했음을 입증하였다.

같은 1830년 교육도 잘 받지 못한 젊은 청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조직체 하나를 다시 조직하셨다. 이 조직은 전 디어 이겨왔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겨 갈 것이니 이는 이교회가 하나님의 아들의 반차 즉 신권의 권세를 토대로 이루어진 때문이다.

이 교회에 대하여 우리는 비로서, "마치 대양과 같고 밤

대하고 헤아릴 수 없고 찬란하며 그 권위에 있어서, 그 가득 함에 있어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을 두고 같으며 잠잠할 때나 폭풍중에도 같고 낮이나 밤이나 같고 슬한 세대가 와서 또 가고난 뒤에도 변함이 없고 영혼의 바퀴가 돌아도 영원 하신 하나님의 진리요, 성실함"이란 말을 적용할 수 있다.

신권이 주어질 때 두개의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의 경우는 이것을 받는 이의 가치 문제요, 둘째는 이를 받고 그가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 행할 수 있는 봉사 문제다.

창조자가 영원하고 끝없는 신권의 요소이시며 그가 홀로 이를 다스리신다. 신권을 소유한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영광된 특권이요, 축복이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며 사는 자는 그 삶이 윤리적 짐을 발견할 것이요, 선과 악을 판단함에 속히 결정할 수 있는 힘을 허가 받을 것이요, 그의 심령이 부드럽고 다정하나 의를 수호함에 있어 그 정신이 강인하고 과감할 것이요, 신권이 행복을 구성함에 결단코 그릇되지 아니하고 영생으로 치솟는 생명수의 샘임을 발견할 것이다.

* * * *

(24페이지의 "토막삼식"의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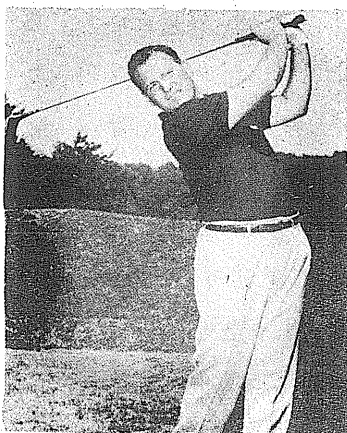
9대, 데이브 오. 맥케이

1873년 9월 8일 유타주 헛트빌에서 출생. 1906년 4월 9일 사도에 성임. 1951년 4월 9일 대관장에 지지. 4개의 신전 봉납. 사도의 대관장으로 50만 마일 이상을 여행함. 현재 94세.

教會가

第一

헤롤드 지. 밀러



(빌리 캐스퍼)

유명한 골퍼가 빌리 캐스퍼는 30여회 이상이나 중요한 골프 토나먼트에서 우승하였다. 그는 아놀드 팔마를 제외한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골프에서 많은 돈을 벌었다. 지난 6월에 그는 미국의 공개 시합장에서 팔마를 만났고 최종대전에서 승리하였다. 빌리는 말하기를,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기도를 하였기 때문에 우승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곳에 있었던 125명의 기자들은 그가 최근에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이 되었음을 알았기 때문에 교회에 관하여 다시 질문하였다. 1966년 1월 1일에 빌리 캐스퍼와 그의 아내 서리와 딸 린다 그리고 아들 빌리가 칩테를 받았다. 여섯살된 아들 보비는 아직 칩테를 받지 않았다.

기자들에게 빌리는 "네, 교회는 내게 내적인 힘을 주었습니다."하고 말했다. 그는 또한 자신의 골프에 대하여 기도하고 있음을 인정하였고 그의 최선을 다하여 경기에 임하도록 기도한다는 것을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이번 공개시합의 대 토나먼트를 위하여 승리하도록 기도를 했다고 하였으며 이번 경기에서의 승리는 선교사업을 위해 이용할 수 있

우리라는 느낌이 있어서 그렇게 하였노라고 했다.

그는 신문이나 팬들이나 골프가들에게 따를 계획을 갖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우승하였다. 그는 팔마에게 7격이나 뒤진 상태에서 승리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빌리에게 있어서 하나의 기적이었다. 그는 기자들에게 말하기를, 그는 가족들과 함께 경기를 갖기 전에 일요일 아침 일찍 기도를 하였으며 경기를 하는 동안에도 그가 칠 구멍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조용히 마음속으로 기도를 드렸다고 했다. 그 밖에도 일요일에 있는 시합에 참가하기 전에 신권회에 참석하였다. 그는 시합에서 동점이 되어 결승시합을 월요일에 갖게 되었다. 일요일 저녁 그는 페타루마 워드(산타토사 스테이크)의 확이어사이드 도입에서 이야기 하기 위하여 저녁먹을 시간을 그대로 지냈다. 비록 표면상으로는 결승시합이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듯 하였으나 그는 교회에 대한 그의 임무를 다른 어떤정보보다도 앞에 두었으며 그는 한밤중에 저녁을 먹었다.

다음날 그는 기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해 주었다:

"나는 토나멘트가 있을 경우에만 일요일에 골프를 칩니다."라고 빌리는 말을 시작했다. "이것은 골프란 나의 호구지책이며 그래서 골프를 쳐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월요일의 결승시합을 갖기 전에 잠을 많이 자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먹고 잠자는 것을 걱정하는 것보다 나의 교회일을 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내가 아놀드 팔마와 대전했을 때 나는 피로하다든가 걱정스럽다는 느낌을 전혀 갖지 않았습니다. 나는 팔마가 2격이나 나보다

앞서 있었을 때에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우승해야 함이 하늘 아버지의 뜻이라면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도와 주시리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때가 앞서 드린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그리하여 다른 골프 경기자들이 그러한 토나먼트 경기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내적인 안정을 나토하여금 갖게 해 주셨다는 것을 나는 알았습니다. 나는 정상적인 경기를 하고 있었으며 경기가 끝나기 전에 팔마보다 4점을 앞서 그처럼 큰 차이로 승리를 하였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전국의 텔레비 시청자들 앞에서 빌리는, "나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사람에게 감사드리고 싶습니다."하고 말했다. 그는 "후원"해 준 사람을 뜻하지 않고 "기도"해 준 사람을 뜻하였다.

시합이 진행되는 동안 어린 아들 보비 캐스퍼는 다섯 살이었지만 텔레비존으로 시합 광경을 보고 있었다. 그러나 상업광고가 나오는 동안은 보비가 침실로 가버리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는 아버지가 이기도록 무릎 꿇고 기도하기 위하여 침실로 갔다.

빌리 캐스퍼와 그의 아내와 가족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오래전에 그들은 침례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를 알았다. 그들은 가끔 물문교리를 배웠고 교회의 규례를 알았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큰 변화가 아니었다. 빌리 캐스퍼와 그의 가족은 그들이 만약 의로운 생활을 하였다면 그들이 주님께 축복을 구할 때 주시리라는 것을 알았다.

한번은 팜 스프링스에서 썩은 음식을 먹고 빌리가 심한병이 나게 되었다. 그날 밤 그는 장로들에게 병이 낫고 빨리

회복되도록 축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장로들은 그렇게 하였다. 다음날 빌리는 토나멘트에서 64점을 얻었다.

지난해 내가 빌리와 함께 3월 3일부터 18일까지 월남에 있었을 때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였고 그 안에도 틈틈이 기도하였다. 빌은 이보다 앞서 마닐라에서 필립핀 공개 시합에 참가하였었다. 이것은 그가 부가적인 희생이 없이 전투지역에 갈 수 있었음을 의미하였다.

그는 국무성에 그의 봉시를 제의하였고 국무성과 국무장관 매나마라는 빌리의 월남 방문을 승인하였다. 군에서는 우리를 위하여 계획을 세웠다.

빌리 캐스퍼의 방월을 군에서 알자 자기의 부대를 방문해 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었다. 그는 많은 진지를 찾아갔고 처음 6일 동안에 거의 48개소를 방문하였다. 그는 70여 회의 시범에 응하였고 30여 회의 강연회를 가졌으며 휴대하고 갔던, 그의 토나멘트 경기를 찍은 두개의 필립을 보여 주었다. 그는 여성 연예인과 많은 사람이 갈 수 없는 산간 지역에 갔다. 이것은 그가 헬리콥터로 다녀야 함을 의미했다. 그는 보급품을 제공하는 저공투하 임무를 가진 몇가지 특별 작전대와 함께 비행하였다. 그는 세계 최고의 항공모함 4발기에 타고 있었다. 그는 사이공과 달라트에서 골프 시범을 보였다.

월남에 있는 동안 우리는 한번도 우리가 위협한 상태속에 있다고 느껴보지 않았다. 우리는 보호받게 되리라는 신념을 갖고 있었고 또 그렇게 보호를 받았다. 사실 우리가 월남을 떠났을 때 우리는 둘이 다 우리가 점든 곳을 떠나고 있다는 느낌을 가졌다. 우리는 역시 보호받고 있다고 느껴진

그곳의 교회 회원들을 많이 방문하였다.

빌리 캐스퍼와 그의 가족에게 있어서, 복음을 실천한다는 것은 하나의 새롭고 흥미있는 도전거리가 되었다. 빌리는 최근에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교회 표준대로 생활한다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것들을 믿기 때문입니다. 십일조를 낸다는 것도 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태초부터 주님의 돈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이 계명을 지킨다면 더 많은 것이 내게 돌아올 것입니다. 내가 십일조를 바치고 교회의 법대로 생활해온 이래로 나는 내가 전에 누렸던 것보다 더욱 행복하였고 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한가지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하늘 왕국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와 함께 다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위대한 운동가중의 한 사람이 이야기한 것이며 그의 진심에서 울어남 확신이다. (데저렛 체육부장)
(48페이지의 계속) * * * * *

마련되고 있는중에 특히 이범에 피아노까지(이미 신청) 갖추어지면 훌륭한 지부토서도 면목을 가지게 될 것이다.

또한 이곳에 주일학교 이외 상호향사회가 수개월전에 조직되어 훌륭한 인품과 특수한 자질을 가진 활동적인 회원이 중후한 움직임을 보여주어 보는이로하여금 경탄케하고 있다.

이제 각 회원이 은혜를 입은대로 말은바 그 각분을 큰소망을 위해 충실히 행하고 힘차게 그리고 굳게 발을 옮긴다면 머지않아 행복과 기쁨이 우리의 집집마다 그리고 활기찬거리를 메울 것이다. (신촌지역모임 대표)

내가 받은 祝福

이 민 관

나는 처음 교회에 찾아와서 교리 공부를 할 적에 모든 생활을 교회안에서 하고 싶고 교회 담 밖을 나가기 싫은 생각을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 죄악에 물들고 더러워진 몸이기에 교회안이 평화스럽고 온화하며 말 그대로의 시온으로 느껴졌기에 세상악에 두번다시 발을 들어 놓기가 싫어졌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희집 온 가족은 다 함께 교회 의식절차에 따라 회원으로로서의 생활이 시작된 것이 올시다.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내가 받은 축복을 열거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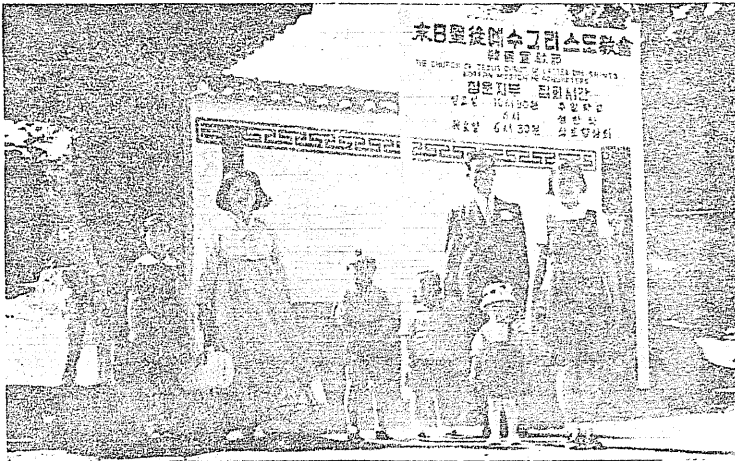
나는 늘 조석으로 기도하기를 저희를 언제나 교회에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이투어 주시옵고 굳건한 신앙을 주시옵고 주님께서는 저 같은 우매하고 못나고 부족한 자를 언제나 배불리 먹여 주시고 따듯이 입혀주시고 주님 품안에서 포근이 재워주셔서 감사하옵고 저토 하여금 항상 주님을 따르고 섬길 수 있는 시간과 조건을 주시옵고, 주안에서 의로운 생활을 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했고 주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다 들어 주셨습니다. 그 당시 저는 신병으로 직장도 휴직중에 있었지만 주야 구별없는 직장에서 지금과 같이 매주일날마다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곳으로 옮겨주셨고 지금은 가정적으로나 세상 환경으로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주님께서는 생활에 변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의 몸은 완쾌한 몸은 못되나 당시 병약한 몸을 주님께

말기고 건강을 구하였습니다. 지금은 어려운 중에도 모든 일에 보통점도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돌보아 주십니다. 즉, 병에 대한 세상의 약과 의사와도 인연을 끊었지요. 미련한 행위며 남이 보아 과신 행위라지만 저는 다니엘이 풀무불이나 사자의 굴에서 구원받은 믿음을 가져보고 싶습니다. 저는 또한 교회에서 순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에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도 십일조의 법을 무조건 순종하는데, 약 2년전에 급한 일로 친구한테 얼마간의 돈을 빌려 쓴 일이 있습니다. 물론 궂돈에서도 십일조를 바치고 궂돈을 돌려 주어야 하니 그 궂돈에 대하여는 십일조를 바친 셈이지요. 그랬더니 돌려주려던 궂돈을 그 친구는 받지 않고 나에게 희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십일만을 받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때에 말라기 3장 10절에서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나의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 생각을 하였지요.

특히 요즈음 저는 잠토 신권을 받고 지부장 부름을 받고 모든 일을 충실히 성실하게 하고자 노력하오나 그래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저희 생활에 법화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써 주님의 작은 종으로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구하는대로 아쉬움을 채워 주십니다. 주님의 축복은 무한히 크다는 것을 더욱 느낍니다. 항상 저는 모든 생활이 의로운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희구하고 노력합니다.

이 많은 축복이 언제나 감사하여 간혹 집회시간에 저는 확고한 느낌을 맛보곤 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 회원들만이 부름받아 시온에 모여 예배드릴 때 이보다 더 축복받고 평화스러운 곳이 이 세상 어느 천지에 가도 볼 수 없으니 말입니다.

(삼척 지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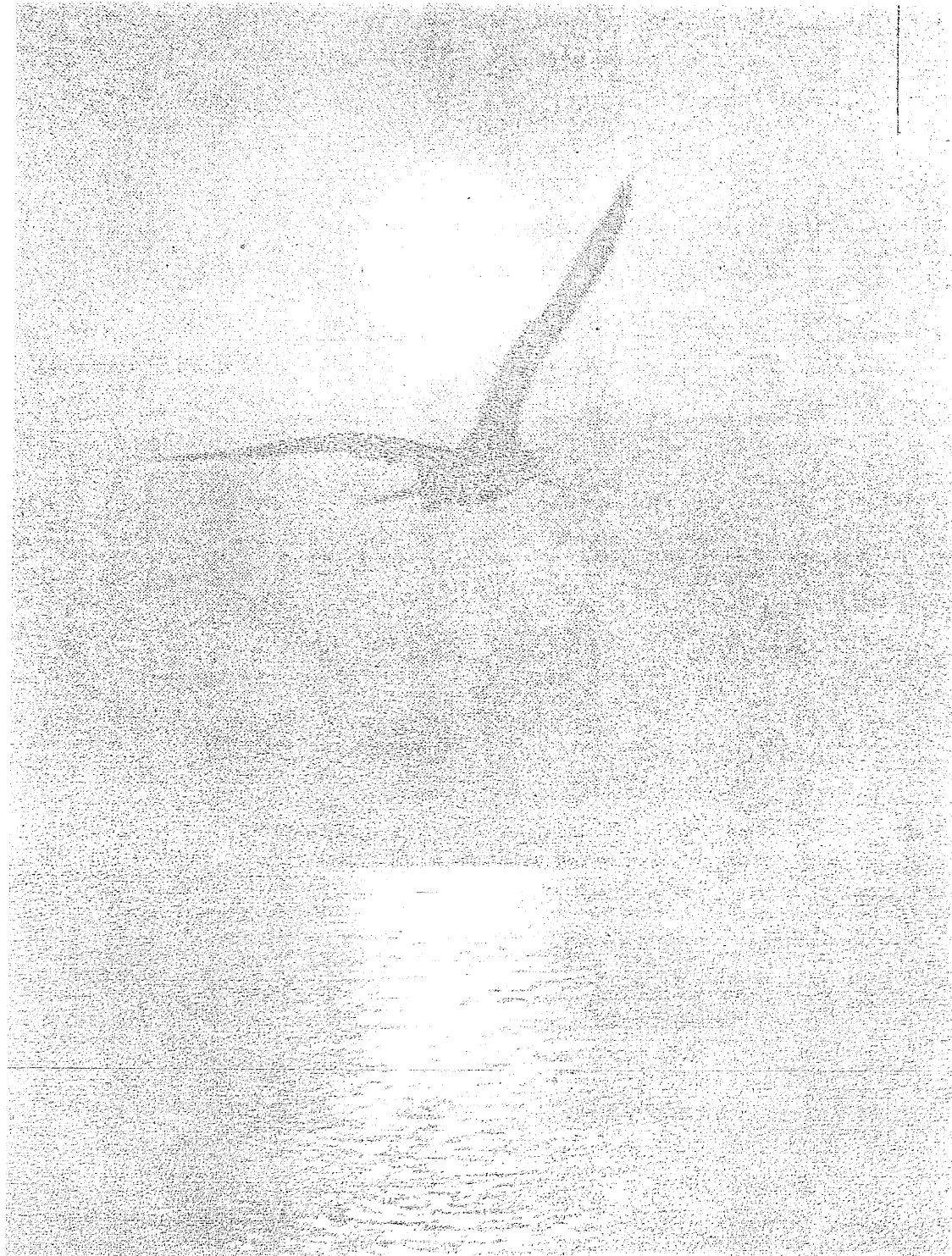
(필자와 가족 일동)

* * * *

(22페이지 "선교사 초대"의 계속)

두리라."하신대도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나의 존경하는 사도 바울과 같이 힘차게 증거할 수 있는 그 날이 되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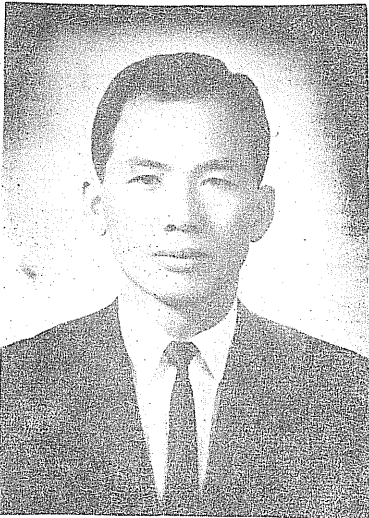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 지키었다."고. (선교부 요원)



선교사 초대

한국 편

천 낙석, 장토



이 글을 쓰기에 앞서 두 려움이 생긴다.

어업간 한해가 지났고 지 난해를 돌이켜 볼 때 녀들의 부수성을 탈피하려는 시도에서 의 바쁜 일정 뿐이었다. 한 해라 하면 나에게 있어서는 두척 고귀한 것이며 두업가 절제와 보람을 가졌어야만 했다. 그러나 지금 남는 것 아쉬움뿐 이를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다해 본다.

선교사라는 세글자가 주는 중압감이 나에게 너무나 컸었던 탓(?)이었는지 기뻐해야만 했던 나의 생활이 때 때로 무척 어려웠던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처음 부산에 도착했을 때 벅차고 두려운 착잡한 심경이었던 것만은 사실이였다. 그러나 내게 준비되었던 한 구절의 글췌은 나를 업제이고 격려와 신념을 주기에 풍족했던 것이다. 첫날부터 아침 10시에 첫번 가가 호

호 방문의 일정이 시작됐다.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탓이 있는지 첫번 집앞에 섰을 때 나는 감히 문을 두드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동반자에게 문을 두드리도록 부탁했다. 동반자는 썩 나서서 문을 두드렸다. 무언가 나의 머리를 강하게 치는 것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때 중년 아낙네가 문을 열었을 때 나는 자신있게, 마치 고장난 전축과도 같이 모든 선교사들이 매일 매일 집집마다 다니면서 외치는 "저희들은 달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 온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각 가정을 방문합니다. 등등..." 그래서 첫 약속을 만든 후 자신을 갖고 그날 하루의 일정을 기쁨과 설렘속에서 다치고 돌아왔으나, 피로라기 보다 들뜬 기분에, 잠들려 했으나 잠못이투며 만리장성을 쌓다가 늦게야 잠이 들었다. 그러나 소위 일컫는 "파란통"은 새벽부터 깨서는 조심한다고 하지만 부산을 떨었다. 어쩐지 무언가 필요하면서 세월과 씨름만 하였다. 시집 살이를 하신 어머니의 처지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았다. 어머니가 그리워 지고 더욱 존경하게 되었다. 그간 오손도손한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임무가 끝나면 조용히 가족과 여러분들과 그리고 ?실례합니다.

한 해가 준 축복과 보람은 감당키에 너무나 큰 것이었고 진실로 이 기간을 통해서 참 돌돈의 이상과 생활양식을 배웠다. 경전에 "사람이 무지하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느니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 말씀을 확신하며 선행적이면 배워서 여러분과 이 기쁨을 나누고 싶다. "너희가 수고를 서로 담당하여라, 그리하여야 그리스도 이 법을 이루느니라"

선교사의 입장이기에 앞서 우리가 하여야 할 필요한 일이 너무나 많고 교회는 여러분을 기다리며 필요로 한다. 어느 누가 여러분의 구원이나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며 복음은 개인적이어서 여러분 스스로가 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누가는 기뻐하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이시며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편견이 아니시며 모든 인간들에게 다 같은 하나님 이시다. "Everyman is my superior in someway." 우리가 진실로 침례시에 약속한 성약을 기억하고 나의 정성과 능력으로 주님의 교회 즉 나의 교회를 위하여 말은 바를 다한다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리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있다. 주님께서 시드니 리그돈에게 이르시기를, "네 손이 어디 가던지 나의 손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셨다. 주님의 능력과 신권의 능력을 언제나 부인하지 않았고 지금도 나의 말은 바를 수행하도록 노력한다. 1월 31일이면 나의 선교사 첫 돌이 되고 보니 선교사 생활에서 배우고 받은 사실에 감회가 크다. 남은 세월은 좀더 노력하며 보람을 쌓도록 노력하려 한다. 어느 시인의 회고담을 생각해 본다.

"지금 내가 거두고 있는 가시는 내 자신이 심은 것이었다. 이제 그 가시들이 나를 찔러서 내게서는 피가 흐른다. 나는 내가 심은 씨에서부터 어떤 열매를 거두리라는 것을 미리부터 알았어야 할 것이었다."

나는 이러한 모든 것을 주님과 약속했으며 "심은대로 거 (17페이지에 계속)

트미장식

말씀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회복된 이래 하나님 의 뜻을 계시받는 계시자요, 선견자요, 예언자인 대관장들이 줄곧 성도들을 인도해 왔다. 그러나 요셉 스미스 초대 예언자와 협재의 대관장 데비투 오. 매케이를 제외하면 어느 시대에 누가 예언자였는지 분명히 알고 있는 성도는 드물다. 그 때문에 각 대관장의 성역을 알아보기전에 우선 성도의 벗 권잡실 압태로 역대 대관장님들을 엄대순으로 찾아 뵙기로 한다.

초대, 요셉 스미스 2세

교회를 회복시킨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1805년 12월 23일 버몬트 주 샬론에서 출생. 1820년 봄, 첫번기도. 1829년 멜키세데 신권을 받음. 1830년 4월 6일 교회조직. 1832년 1월 25일 대신권 회장으로 지치. 1844년 6월 27일, 일리노이 주 카테지에서 순교.

2대, 부리감 영

버몬트 주 워턴에서 1801년 6월 1일 출생. 1835년 2월 14일, 사도토 성임. 요셉 스미스 순교후 12사도회 회장으로 지치. 1847년 12월 27일 교회 대관장으로 지치. 1877년 8월 29일 쉘트레이크 시에서 사망.

3대, 존 테일러

1808년 11월 1일 영국 만돌프에서 출생. 캐나다에서 교회에 가입. 1838년 12월 19일 사도토 성임. 1860년 10월 10일 대관장으로 지치. 1877년 7월 25일 뉴러주 케이스빌에서 사망.

4대, 윌포드 우드럽

코네티컷 에이본에서 1807년 3월 1일 출생. 1839년 4월 26일 사도로 성임. 위대한 선교사 인도자의 한분. 1889년 4월 7일 대관장으로 지지. 1898년 9월 2일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사망.

5대, 토렘조 스노우

1814년 4월 3일 오하이오주 맨루아에서 출생. 1849년 2월 12일 사도로 성임. 1898년 9월 13일 대관장으로 지지. 3년간의 재직기간동안 십일조의 원칙을 확원에게 다시 강화함. 1901년 10월 10일 쉘트레이크시에서 사망.

6대, 죠셉 에프 스미스

1838년 11월 13일 미조리주 화웨스트에서 출생. 1866년 7월 1일 사도에 성임. 1901년 10월 17일 대관장에 지지. 대관장으로서 첫해의 여행. 1918년 11월 19일 쉘트레이크시에서 사망.

7대, 히버 제이. 그랜트

1856년 11월 22일 쉘트레이크시에서 출생. 1882년 10월 16일 사도에 성임. 1918년 11월 23일 대관장에 지지. 1945년 5월 14일 쉘트레이크시에서 사망.

8대, 죠지 알버트 스미스

1870년 4월 4일 쉘트레이크시에서 탄생. 1903년 10월 8일 사도에 성임. 1945년 5월 21일 대관장에 지지. 1951년 4월 4일 81회 탄신일에 쉘트레이크시에서 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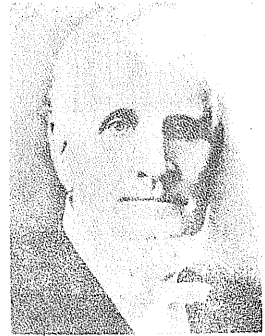
(9페이지에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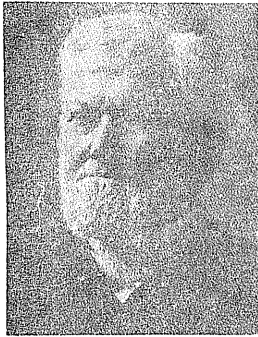
초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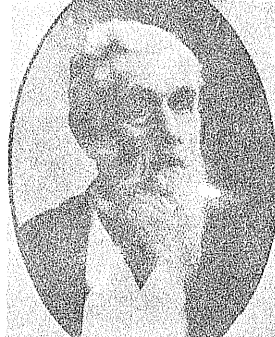
2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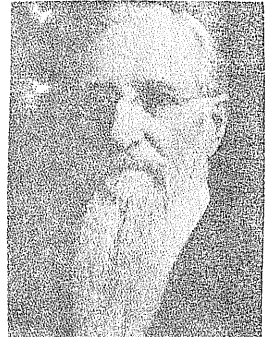
3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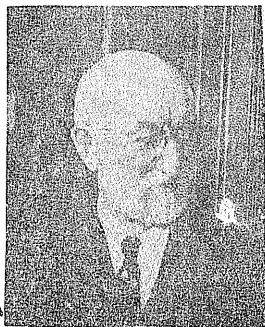
4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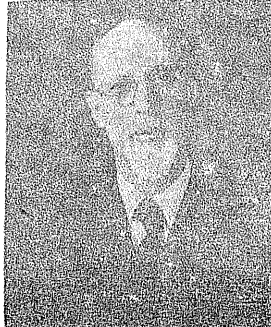
5 대



6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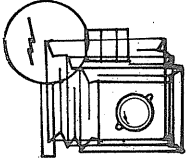
7 대



8 대



9 대



“성도의 벗 畫報”

삼 청에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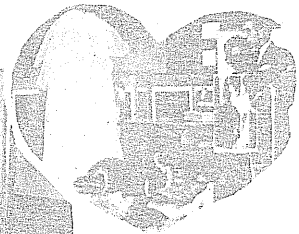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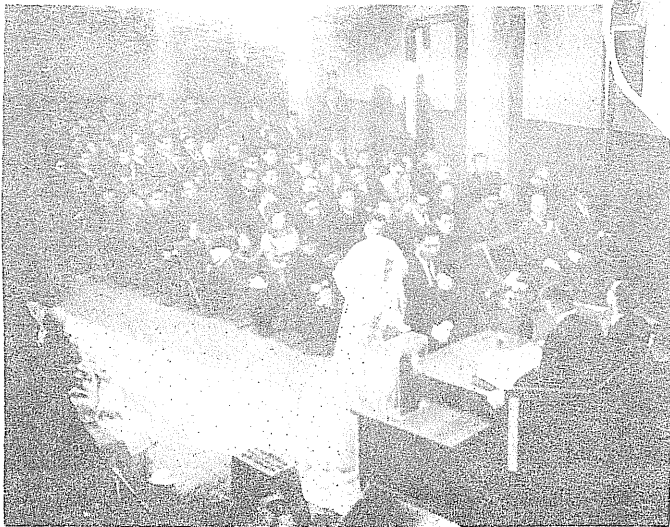
물론 선교



고일도장노의 모습



祝賀합니다



구 중식 형제

結婚

相互扶助會의 어제

1965년 3월 17일
상호부조회 창립 기념
활동의 주역들. →



←1963년 3월
지방대회를 마
치고



1962년 11월 지방대회 기념

裴一文部長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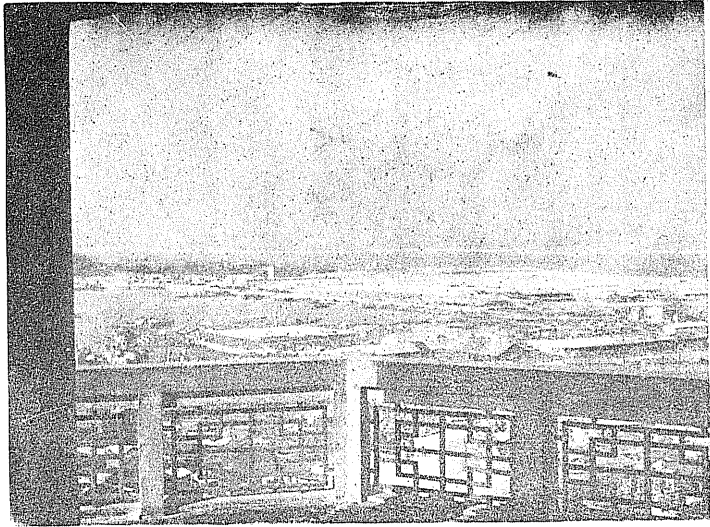
선교부선 교사들의 포스



(왼편으로부터 페리튼 장토, 윌러드 장토, 팔머 부장, 힐 장토, 애쉬워스 장토, 데일러 장토, 스티븐스 장토, 리브 장토, 천낙서 장토.)

새 宣敎地域의 파노라마

-인 천-



귀환선교사 消息

돈 지. 파우엘 장토 편

1956년 아직 한국 지방부가 북극동 선교부에 예속되어 있을 때 한국 땅에 제1차으로 찾아온 선교사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돈 지. 파우엘 장토다.

"성도 전원이 선교사"라고 정의하신 멕케이 대관장님의 논지에 의하면 이 땅을 찾아온 제1의 선교사는 군인형제들이 되겠지만 복음 선교사의 부름을 받고 찾아온 이는 바로 이 파우엘 장토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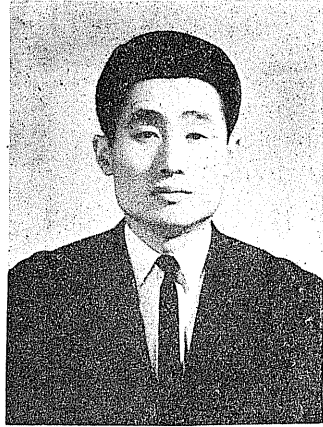
그는 당시 예배장소였던 서울고등학교 어느 교실에서 통역을 세워 자기를 소개했으며 옛 선교사 법대로 부름을 받은 기혼 선교사였다. 당시 그는 두살이 되는 첫 딸을 고국인 미국에 부인과함께 남겨둔채 일본과 한국에서 선교사 생활을 한 것이며 자기의 첫 딸을 만나지 못함채 선교지역에서 그딸의 출생과 성장의 소식만을 들으며 사진으로 상면하면서 선교사 활동을 했었다. 6척이 넘는 당당한 체구에 감인했던 그의 성품은 이미 철족이나 피부색을 초월한채 선교활동에 전념하면서 많은 성도의 존경을 받았었다. 그의 체류기간은 극히 짧았으며 당시의 회원은 모두 그를 기억하고 있다.

귀환 선교사 가운데 그 뒷소식을 전혀 알지 못하는 선교사가 많고 특히 파우엘 장토의 소식은 더욱 감감하지만 앞으로 이 난을 통하여 보다 상세한 뒷소식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한다.

役員을 찾아서

— 김상호 형제 회견 —

새해를 맞아 모든 성도들이
역원들과 함께 새 출발을 다짐
하며 새로운 계획에 분망하고 있
는 요즘 최연소자토써 지방부
평의원에 부름받아 봉사하고 있



는 김상호 형제를 찾아 몇가지 궁금증을 풀어 보기도 하였다.

기자: 안녕하십니까? 이처럼 바쁘신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
사합니다. 우선 지방부 평의원으로 수고하시게 된 것
을 축하드립니다.

김형제: 감사합니다.

기자: 김형제님께서는 지방부 상호향상회를 담당하는 평의
원 이시라구요?

김형제: 예, 맞습니다.

기자: 그러니까 언제 이 직분에 부름받으셨지요?

김형제: 지난 11월 지방대회 때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그 때 이 소감을 좀

김형제: 글세요. 너무나 부족한 저가 든 직분을 받았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더욱 더 교리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
고 또 영적인 생활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김형제의 겸손한 태도에 기자는 머리가 숙여졌다.)

기자: 그러니까 김형제님이 교회 회원이 된 것은 1963년

기자: 2월, 대구 중앙지부에서라고 기억되는데 그때 김형제님께서 받게 된 동기 좀 여쭙어 볼까요?

김형제: 동생 삼현이가 먼저 교회에 다녔는데 그 동생이 나를 교회에 인도했습니다. 그때 동생이 나를 교회에 인도하기에는 많은 기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김삼현 형제는 지금 성북지역에 있죠?

김형제: 예, 주일학교에서 교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자: 김형제님은 매우 가정적인 타입이라고들 하는데... 특히 결혼후에 입은 생활책학이라도 있으면 말씀해주실까요? 좀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훌륭한 물돈가정 건설을 위한 신조나 계획같은 것....

김형제: (선듯)부부간의 사랑, 이해, 정직, 겸손, 그리고 복음속에 생활하고 영적생활을 하면 훌륭한 물돈가정이 된다고 봅니다.

기자: 김형제님은 물론 그대로 생활하고 계시리라고 보는데..

김형제: 그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기자: 김형제님은 다방면에 취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김형제: 대체로 운동을 좋아합니다.

기자: 무슨 운동?

김형제: 주로 구깁니다.

기자: (볼썽) 혹시 성도의 벗 지면을 통하여 부인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마디 부탁해 볼까요?

김형제: 글세요. 매일 보는 사람에게 무슨 할말이 있겠음니까? 하 하 하

기자: 성도의 벗 독자에게 주고 싶은 말씀은?

김형제: 성도의 벗 독자는 반드시 전부 읽고 좋은 점을 자기가 찾아서 그 좋은 점을 아는데 그치지 말고 실행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 좋겠어요.

기자: 교회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의견은?

김형제: 모든 형제 자매님들 간의 비판과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자기 자신의 좁은 신앙으로 판단하지 않으면 틀림없이 회원들간의 사랑이 차고 넘치겠고 교회가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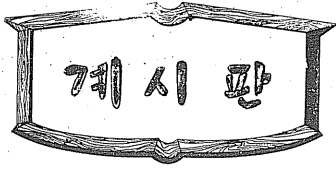
기자: 끝으로 한 가지 더 질문해 보겠는데 김형제님께서서는 상향회의 발전을 위해 지방부 평의원으로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김형제: 상향회를 통하여 모든 형제 자매들이 이 교회가 하나님에 참된 교회라는 간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며 또 한국 풍습대로 동양적인 활동을 계획하려 합니다.

기자: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악수)

김형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김형제를 만나고 돌아선 기자의 머리 속엔 하나의 시련을 보는 듯 상향회의 밝은 전망이 스쳐갔고, 훌륭한 물문지도자가 또 하나 탄생하였다는 기쁨에 발걸음이 가벼웠다. (달)



△김성규 형제 득녀

지난 1월 13일, 동부지부 김성규 형제는 첫딸의 아버지가 되었다. 는 소식. 산도의 경과를 조심 스텔 묻는 기자에게, 산후경과는 좋으나 난산이었다고. 순간 기자의 머리속엔 창세기 3장 16절의 말씀이 떠올랐다. 메디칼센터에 입원중이던 산도와 아기가 이제 퇴원하였다니 반가운일.

△지방부 소년단 책임자에 유침열 형제

그간 동부지부 지부장단 제1보좌로 수고해 오신 유침열 형제가 지방부 소년단 책임자로 부름 받았다는 소식. 지방부의 소년단 활동에 총괄리하게 될 유침열은 선교부장단 제1보좌인 씨션 형제와 함께 일하게 되리라는바, 자못 그의 통사가 기대되리라는 읍서버들의 존평.

△감사장 수여

감 사 장

부산동구 지부장 및 동구지부 퇴원일동

위 사람은 성도의벗 발전을 위하여 많은 원고와 지부소식을 보내주었으며 성도의벗을 널리 알리는 데 타의 모범이 되었기토 이에 감사장을 수여함.

서기 1967년 1월 24일
성도의벗 편집실

성장하는 韓國宣敎部

편 집 실

제2대 한국 선교부장의 중임을 맡고 불철주야 온갖 노력을 기울여 일하신 스펜서 지이. 팔마 선교부장님의 수고가 헛되지 않아 한국 선교부는 그야말로 1966년 한해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보았다.

특히 그가 전공한 분야가 동양을 포함한대서 유별나게 동양과 한국에 관심을 갖고 일했던 만큼 그 작업과 작업의 진전이 극히 효과적이었다. 선교부장의 직에 부임한 이래로 먼저 교회내의 질서와 계통 확립에 부심하셨고 새로운 지역 개발, 경전번역 정리, 대사회활동에서의 교회지위 건설, 교회역원의 선교정신 양양, 등 일일이 다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을 해내셨다. 아침 일찍 기상하여 밤이 늦도록 때로는 대학교 교수실로, 때로는 신문사로 그리고 각 지부와 지역을 날날이 방문하시면서 모든 회원을 격려하신 그 즐기찬 정력은 젊은이들을 무색케할 정도였다. 이제 성도의 벗 편집실은 통계로 잡은 선교부 발전상을 이곳에 소개하여 선교부산하 전역원과 성도가 일하고 기도한 보상이 무엇인가를 전하고자 한다. 특히 여기서는 1965년과 1966년의 실적을 비교 검토하였다.

	사	항	1965년	1966년
1	킬레자 수		275	353
2	宣敎活動에 참여한 平均人數(月別)		40	45
3	宣敎師가 牧會에 對한 拜會回(他의 月平均)		139	151

4	宣教師가伝道에 소비한 時間 (年平均)	1668	1812
5	宣教師 1組(2人)가改宗시킨數(累積數)	13.6	15.8
6	宣教師1組가改宗者 하나에 소비한 時間	120	115
7	21才以上 改宗者	95	171
8	12才以上 20才未滿 改宗者數	179	178
9	8才以上 11才未滿 어린이	1	4

여기에 부가하여 지역별 개종자 수를 살펴보면 이미 조직된 7개 지부의 3년간의 지부별 개종자 평균수가 38명인데 반하여 최근에 조직된 2개지역의 1966년도 개종자 지역별 평균 인원이 44명이라는 점이다.

위 통계표에서 보면 한국 선교부의 발전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온다. 이밖에도 그 상보를 기재할 수 없는 성질의 분야인 십일조와 헌금에 있어서 헌납자가 거의 배로 늘어났다는 (1965년에서 1966년 사이에) 사실은 이 교회의 전도가 지극히 건장하다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다.

통계표 6항에 나와 있는 개종자 하나를 위해 소비된시간에 있어서 1965년의 120시간이 1966년에 와서 115시간이 된 것은 단순히 선교 테크닉의 향상만을 뜻하는게 아닌것 같다. 특히 21세이상의 개종자가 그 배로 늘어났다는 사실은 주목할만 하다.

그러나 우리는 유능한 지도자의 역량에만 의존하여 안이한 태세로 한국에서의 교회 건설작업에 임할수는 없는것이다. 끝으로 선교부와 지방부의 지도자 여러분께 마음의 감사를 드리며 남 모르게 수고하시는 선교부장님의 건강을 위해서 전 성도가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하고 싶다.

우리의 兄弟 죠지 롬니



(죤지 롬니)

송 태 섭

미국 미쉬간주 주지사인 죠지 다불유. 롬니 형제는 우리 교회의 열렬한 회원이며 1968년도 미국 공화당 대통령후보로 그의 지명이 확실히 된 분으로 매주 타임지나 뉴스위크지, 기타 미국주요 일간신문 정치란에 거의 매번 그의 동태와 말씀이 실리고 있다. 물론교 신자인 "롬니"형제는 국가의 가장 어려운 문제에서 미국 개개 가정의 조그마한 문제에 이르기 까지 신앙과 믿음과 미국을 설립했던 근본정신을 가지고 처리하고 있다. 오늘날 미국에서 신앙과 미국을 설립한 근본 이념이 쇠퇴되어감을 통탄하고 이해결방안은 개인의 책임과 가족의 책임과 개별조직체의 책임에 있고 해결을 위한 출발 시점은 각 가정에서부터라고 말해준다. "더 마이아미 헤랄드", 1966년 12월 11일자를 보면 미국 8개주요 신문기자들이 약 3주간에 걸쳐 30여개의 주를 돌아다니면서 200여명에 달하는 공화당 출신 주지사들과 상원의원, 공화당 고위층 각지역 지구당 위원장, 정치인들을 만나서 여론을 조사한 결과 1968년에 있을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롬니"형제가 지명되기에 가장 적격인 인물로서 알려지게 되었고, 이 신문에서는 "롬니"형제가 대통령으로서의 면모가 보일뿐 아니라 신앙심이 강한 물론교 성도

로서 그 누구보다도 가장 도덕적으로 결백하고 청백한 점이 그를 대통령 후보로 내 세우기에 조금도 손색이 없노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톰니" 형제는 아버지 "가스켄" 과 어머니 "안나" 사이에서 1907년 7월 8일 멕시코 치후아화란 곳에서 탄생했다. 그러니까 지금 59세다. 1929년에 유타 주립대학 부속고등학교와 초급대학 과정을 마치고 1929-1930년에는 와싱턴에 있는 조지 와싱턴 대학을 졸업했다. 24세 되던 해 7월 2일에 테놀라 환트와 결혼했다. 자녀로는 결혼한 두 딸 "린다"와 "제인"이 있고 아들 "스토트", "윌리어드", "미트"가 있다.

1927년-1928년에는 선교사로서 스토트랜드와 영국에서 근무했고 1929-1930년에는 상원의원 "데비드 아이, 월쉬"의 관세담당 전문위원으로 일했고 1930년에는 미국 알미늄 회사에 견습생으로 취직. 1931년에는 토스안젤스 사두실 판대부에서 일하고 1932-1938년에는 미국 알미늄 회사 와싱턴 지역 지배인으로,

1939-1941년 자동차 생산 연합회 데트로이트 지역 지배인

1942-1948년 자동차 생산 연합회 총 지배인.

1950-1953년 나쉬-캐빈 자동차 주식회사 부사장.

1953-1954년 상기 회사 삼무점 부사장.

1954-1962년 아메리칸 토타스 주식회사 총 지배인.

1962년 아메리칸 토타스 주식회사 부사장겸 취체역.

1963년 미슈간 주지사

1946-1949년 금속 무역 산업 의회 미전역 노동자 대표위원.

1942-1945년 전서자동차 생산협회 의장.

1941-1942년 자동차 생산 연합회 의장.

- 1959—1962년 미쉬간주 교인 협회장.
1937—1938년 1. 전시 병력 조정위원회 위원장.
2. 노동자위원 위원장
3. 워쉬무역협회 데트토이트 지역 회장.
1941년 데트토이트 무역협회 회장
1944—1947년 미국 무역협회 회장
1946년 전국 자동차 및 골덴주빌리회사 지배인 겸 사
장.

- 이 외에도 1. 기독교 및 유대교 연합재단 이사장
2. 트렌부르크 학교 재단 이사장
3.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데트토이트, 스테
이크부 회장직을 역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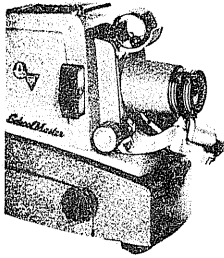
"톰니"형제는 이제 막 페널티 킥 공을 찰려고 공을 발앞
에 놓고 있는 축구선수와 같다. 많은 관중들은 그를 주시하
고 있다. "톰니" 선수와 골문사이에 어느정도 거리가 있지
만 공은 "톰니"선수에게 있는 것이다. 전국 공화당 1,333명
의 대의원중에서 절반인 667표 이상을 획득해야 대통령 후보로
지명이 되는데 "톰니"형제는 450—500표 가량이 확실한 예상
득표이고 "닉슨"이 500—550표 가량이 확실한 예상득표인데,
요는 나머지 약 300표가 그 누구에게 던져지느냐에 있다. 공
화당 대의원 총 투표의 거의 반수가 되는 미국 동북부 지역
은 거의 "톰니"형제의 승리가 틀림없고, 골드워터 상원의원의
출신지역인 미국 서남부와 서부도 "톰니"형제를 적극 후원할
것 같고 텍사스와 캘리포니아도 그와 함께 일할것이 틀림 없
고 무엇보다도 미국 서부지역과 물론교신자들이 많이사는 산

으로 둘러싸인 주들은 "롬니"형제의 것이다. 물론 전국의
물론신자들은 말할것도 없고 요는 남부가 거의 "니슨"
을 지지하겠지만 그래도 "롬니"형제가 40-50표는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중서부에 속하는 주들인 오하이오 주, 아라
노이즈주, 위스콘신주가 어떻게 태도를 결정할까 하는 것이
좀 어려운 문제다. 이제부터 "롬니"형제는 움직이기 시작할
때가 왔다. 그는 여러곳으로 돌아다니면서 인사들 나누고 악
수를하고 좀더 이야기를 나누고 당위원들에게 서신을 띄우고
"롬니"형제는 지난 2년동안 34개주를 방문했다. (12개의 외
국도 방문) 1965년에는 거의 80일간을 미쉬간 주 밖에서 일
했다. 1966년에는 65일간을 주 밖에서 보냈다. 하지만 1967
년에는 거의 3배를 더 미쉬간 주 외에서 일해야 할 것이다.
한국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훌륭한 분을 우리 교회회
원으로 가지고 있음을 자부해야겠고 "롬니"형제의 앞날에 하
나님의 쓰신 축복과 행운이 담백 깃들도록 다 같이 마음껏 축
복해 주어야겠다. (지방부장 제2보좌)

*This nationwide survey of Michigan Gov. George Romney's presi-
dential prospects was prepared by a team of eight Knight Newspapers
reporters. In the past three weeks, they have toured 30 states, from
Maine to California, talking to nearly 200 Republican governors, sena-
tors, party officials, county chairmen and political experts. To en-
courage frankness, sources were permitted to speak off-the-record if
they insisted.*

*Their reports, taken all together, form the first comprehensive
picture of Romney's standing in his party as the long struggle for the
1968 nomination gets under way.*

*Taking part in the survey were James K. Batten, Robert S. Boyd
and Saul Friedman of the Knight Newspapers Washington Bureau;
Roger Lane, Tom Shawver and George Walker of The Detroit Free
Press; Robert Kotsbauer of The Akron Beacon Journal; and John
McDermott of The Miami Herald.*



삼 청 에 서 의

물 문 전 시 모 임

1967년 1월 7일, 토요일 오후 7시, 삼청지부 예배당에서 삼청과 청운지부 선교사들이 준비한 특별 모임의 막이 올랐다.

송태섭 형제의 사회로 시작된 이 모임에서 이 호남 형제의 개회기도에 이어 연사로 초청된 선교부장님의 약력을 지방부장 차종환 형제께서 소개해 주셨다.

고령자가 대부분이었던 청중석에서 대한 안과학회 회장이신 손정균 박사님 과 이일 박사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고 참석 총 인원은 약 100여명이었다.

삼영 1분전까지도 누가 영화의 내용을 통역 설명하겠느냐 하는 문제가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다가 드디어 지영달 형제의 영사기 조정, 한인상 형제의 해설로 낙착을 보았고, 영화상영 바로 뒤에 있을 선교부장님의 강연 통역은 이호남형제께서 맡기로 되었다. 원래 "행복의 추구"라는 제목의 이 영화는 대사내용이 전부 기독교 시청각 교육국에서 번역되고 필립에 녹음까지 되었으나 불행스럽게도 그 효과를 낼 수 있는 영사기를 구하지 못해 지영달, 한인상형제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이다. 물론이름을 주제로 해서 엮어진 이 영화를 끝내고 났을 때 비록 물론과는 거리가 먼 청중이었으나 크게 감동된 표정을 했고 필자도 콧마투가 시큰 거림을 느꼈다.

곧 이어 선교부장님께서는 "한국에서의 기독교 선교가 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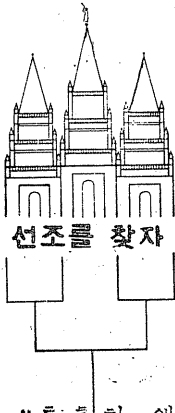
공한 까닭"을 주제로 장장 두시간여에 걸쳐 연설해 주셨다. 특히 연설이 끝나고 나서 허가되었던 질의 시간을 통하여 연사와 청중은 통토를 열고 서로 환담했으며 삼척지부 상호 부조회에서 준비한 다과를 나누어 들면서 돌돈을 소개하는 전시물을 돌아 보았다. 이제 이 시간 우리는 그 모임을 통해 현재 교회에 나오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그 숫자는 알지 못하나 그곳에 나왔던 청중이 가슴에 뿌려진 복음의 씨가 주님의 뜻 가운데 제나름대로 성장하고 있을 것을 안다. 특히 이 모임을 가능하게 하고자 결사적으로 일했던 청운, 삼척 양지부의 선교사들이 지불한 땀의 노력을 우리는 크게 평가하며 허가 되는 모든 기획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투철한 선교정신을 모든 성도의 벗 독자에게도 권하고 싶다.

우리는 이 모임을 통하여 일하는 자가 기쁨을 추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배웠다. 모임을 준비하면서 그 성공을 위하여 기도하고 문전에 나가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이의 심정은 천국을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정도의 가난하고 겸허한 심령이 아니었을까?

끝으로 이곳에서 전시된 모든 전시물이 멀리서 그 첫 토대를 쌓고 있는 광주 지역에서의 전시회 때 쓰였던 것임을 알리고 현재 선교부에 비치되어 있는 이 전시물과 필립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를 동반하여 지부별로 특별 모임의 준비를 서둘러 줄 것을 기대하고 싶다.

계보 활동의 필요성

김 사 원



우리 말일성도들은 하나님과 예수님께 의한 죠셉 스미스의 계시와 예언을 굳게 믿고 있으며 현대관장 데이비드 오. 맥케이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믿음에는 변함이 없다.

"특별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성스러운 신권의 권능을 통한 계시에 의하거나 또는 성서에 의한 예언으로 영원의 생명이 들어가기 위한 굳게 인봉된 사실을 아는 것을 말한다." (교성 131장 5절)

우리 회원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보좌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을 원하고 있다. 우리가 만약 그러한 목표 없이 자신의 믿음이 부족하다는 구실로 최고의 영광의 자리를 원할 수 없다고 단정한다면 그러한 사람은 자신의 신앙태도를 반성하여야 할 것이다. 어떠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도 우리의 교리에 의하여 굳은 신앙을 갖는다면 멀지 않는 장래에 최고의 영광 자리에 갈 수 있는 문이 열릴 것이다.

"해의 영광에는 삼종의 천계, 즉, 삼종의 계급이 있다. 그래서 최고의 영광 자리에 가기 위하여서는 신권의 위치(즉 새롭고 영원한 결혼서약을 말함)를 얻어야 한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다른 천계에 들어갈 수 있으나 그 이상 영광의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며 생식할 수도 없다." (교성 131장 1-

4 절)

"사람은 무지하면 구원 받을 수 없다." (교성 131장6절)

"모든 영은 물질이다. 그러나 그것은 극미순수하여 밝고 깨끗한 눈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볼 수 있다. 우리들은 그것을 볼 수 없다. 그러나 우리들의 육체를 정하게 갖는다면 영을 볼 수 있으며 그것이 물질적인 것을 알 수 있다." (교성 131장 5-8절)

"우리들은 영이 물질적인 것을 굳게 믿으며 영의 세계인 해의 영광에 대하여서도 조셉 스미스의 계시를 통한 교시를 믿는다.

말라기 의 예언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리라. 그렇지 못하면 저주로서 이 땅을 치리라." 하였으니 우리들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과 여섯 사자를 가납하신, 컷트랜드 신전에 보냈으며 특히 천사 엘리야로 하여금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선조와 자손의 구원의 열쇠를 수여하여 그들에게 신권의 권능을 행사하도록 허락하였다.

특히 예수님께서서는 그 신전을 가납하실 때 그 신전에 거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신전 예식에 순종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애림으로 임하며 많은 축복을 내린다고 약속하셨다. (교성 110장 1-9절)

우리들의 마음은 선조에게 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에서는 선조에 대한 기록(족보)이 많이 있다.

우리들은 이 귀중한 족보 기록을 참고토하여 선조의 계보를 찾아서 신전에 봉납하여야 한다.

우리는 신전 결혼식과 아울러 우리가 찾은 계보에 기록된 선조의 수에 따라 신전에 가서 대리 침례하여 선조들의 영을 구원하여야 한다.

선조와 우리들은 일련 타생이며 선조의 구원없이 는 우리들의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신전 의식의 본질은 신권의 권능에 속한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한 것이다. 그러므로 계시에 의해서 땅에서 기록된 것은 하늘에서도 기록되고 땅에서 기록되지 아니한 것은 하늘에서도 기록되지 아니한다." (교성 128장 8절) 라고 하였으니 우리의 계보사업의 중요성을 알고 가족기록과 선조의 계보기록 탐구에 전력을 다하여 계보사업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베푸려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보답하여야 하겠다.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아멘. (서부지부 지부장 제일보좌)

* * * *

(47페이지 퀴즈실의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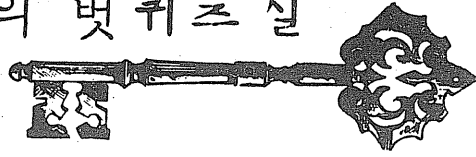
2. 보낼 때는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성도의 벗 편집실 귀중이라 봉투에 쓰고 반드시 "독자권"을 동봉할 것.
3. 해답은 2월 25일까지 보낼 것.

제 1 회
독자권

시 상

1. 3회 계속 정해답자 - 성도의 벗 1년분.
2. 정해답자가 많을 때는 공개추첨하여 성도의 벗에 발표함.(1명)

聖徒의 벗퀴즈 실



이번호 부터는 독자들의 여가 선용을 위해 퀴즈실을 마련하였다. 교리적인 문제를 가볍게 출제하여 누구나 참여케 하며 정해답자에게는 시상키로 하였다. 성도들의 많은 응도 있기를 바란다.

편집실

제 1 회 문 제

1. 경전에 나오는 인물중에서 "마"자가 칫머리에 오는사람 이름을 다섯만 쓰라.
2. 말일성도들이 세운 신전중에서 현재 말일성도들이 소유하지 않고 있거나 소실되어 사용치 않는 신전들은 언제 세워진 무슨 신전인가? 건립 연도와 신전 이름을 각각 쓰라.
3. 모토나이트 부터 조셉 스미스가 받은 금관은 가토, 세토 두께가 각각 몇 인치였나?

응도 요령

1. 문제의 해답을 쓰고 주소 성명과 소속지부명을 명기할것.
(46페이지에 계속)



뿌리는 빨리 가지는 자란다

손학선

우리는 신촌지역의 지난 1년동안의 선교활동과 내외 참
참을 회고하며 1967년 이해가 우리 신촌지역의 발전에 획기적
인 해가 되기를 전 회원은 하나님께서 침묵치 않을 것을 믿
음과 동시 바라고 있다.

1965년 12월 12일 하나님의 예지로서 참다운 신앙의 정
신 풍토 개발의 씨앗이 이 신촌의 중앙에 굳게 심어졌다는 것
을 자랑스러워 하며 큰 영광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이제 신촌
은 도약을 위한 정비 작업은 넘어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몇가지 사실을 들어보면, 1년전에 선교사 네분과
회원 두사람(자매 1명, 형제 1명), 처음 집회를 가진 그로부터
하나님의 뜻은 머물지 않아 부단히 이땅위에 구원의 사업이
살려오는 도중 이제 지역 창설 1주년이 불과 며칠지난 오늘
날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주어진 인류의 구원 사업과 우리들
앞날의 신 기운을 조성함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할 신권소유
자가 이미 19명에다 정 회원이 43명 등록 인원이 약 70명으로
늘어난 것은 지역 발전에 밝은 전망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우리 지역 회원의 자주 의지와 그 능력을 보여주
는 반가운 것의 하나는 지역 회원이 부담해야 하는 재정을
착실히 담당하고 있다는 것. 실례를 들면 부가된 회원의 힘
으로 집회 장소가 신촌의 중앙에 아담하게 마련 되었으며 여
름이면 선풍기, 겨울엔 따뜻한 난로가 완전 구비 되었으며 교
회에 필요한 장비가 준비 되었으며 계속 (14페이지에 계속)



지부消息

청운 지부

지난 1월 21일, 청운지부 구종식 형제가 홍성옥 자매와 결혼을 하였다고 공공배일문 선교부장님의 주례로 열린 이 뜻 깊은 결혼식에는 많은 친지와 성도들이 참석하여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하였다는데 결혼식과 간단한 피로업이 끝난 다음 신랑 신부는 택시에 몸을 싣고 워커히로 떠났단다.

(사진은 확보에)

성북 지역

그간 민 형제님 데에서 토임을 가져오던 성북지역 토임은 회원수의 증가와 구도자의 격증으로 더 넓은 예배소를 마련하려고 오랜동안 고심해 왔는데 여러번의 금식기도와 특별 토임, 기타 남녀 회원들의 적극적인 토금 운동과 헌신적인 봉사로 그 뜻을 이제 이루게 되었다는 소식. 고진 감래라드니 오, 패제라.

삼청 지부

삼청지부 상향 회에서는 지난 1월14일 빙삼경기대회를 쌍문동 스퀘트장에서 가진바, 여러 종목에 걸쳐 남녀 선수들이 출전하여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는데 종합 성적 제 1위는 남자부 성재준형제, 여자부 섬명숙 자매라나. 남매가 우승하여 스퀘트 일가의 관목을 보여준 셈. 이 밖에도 남녀 손잡고 달리기와 리레이가 있었고 전 회원이 참가한 은반상의 슐레잡기 게임도 있어서 여흥을 돋구었다는 흐뭇한 이야기.



멀리있는 성도들

고국에서의 편지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마지한지 벌써 한달이 지났습니다. 보고 싶은 얼굴들과 듣고 싶은 음성들이 언제나 머리속을 스쳐가고 있었건만, 그 얼굴을 보지 못하고 그 음성을 들어보지 못한채, 서로 분주했다는 이유를 앞세우고 또 한해를 마지하게 되었습니다.

새해는 양의해, 정미년. 해가 바뀌었대서 그런것은 아니지만 왜 그런지 멀리 있는 성도들이 무척 그리워집니다. 그래서 한결같이 아쉬워지는 모습들을 그리는 마음들은 조용히 매무새를 고치고 "사랑해 목자의 마음"을 노래해 봅니다.

"사랑해 목자의 마음 귀여운 그의 양들 그가 베푸는 사랑은 금은보다 귀하네, 목자는 제 잃은 양도 사랑하고 생각해, 높은산 골짜기라도 목자는 찾아가네, 추웁고 메마른 광야 도움의 없는 곳에, 헤메는 잃은 양들을 목자는 찾아가네."

노래는 메아리져 가슴마다 사연을 전해주며 멀리 있는 얼굴들을 그리게 해 줍니다.

그렇듯 그리워하는 얼굴들은 지금쯤 어느 곳에선가 내일을 위해서 남다른 소망을 갖고 자기 일에 충실하며 힘차고 알차게 분투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혹자는 학교에서 혹자는 일터에서 혹자는 연구실에서 혹은 전선에서 혹은 가정에서 저마다 분주한 생활을 하며 영원한 행복의 지름길을 찾아 줄달음질 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멀리 있는 성도 여러분, 아니 호흡을 같이하는, 우리의 이형제, 김형제, 유형제, 홍형제, 최형제, 서자매, 김자매, 오형제, 장형제, 현형제 그리고 또 안형제, 배형제, 백자매, 조자매, 문자매, 권형제, 강형제!

고국의 형제들은 멀리 산 머리에 솟아 오르는 흰 구름을 향해 소리쳐 안부를 물어 봅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이국에서 모두 평안하시더냐고. 모두들 잘 지내더냐고. 그래도 직성이 풀리지 않아 고국의 형제들은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며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 하나 외어봅니다.

형제여, 자매여. 주 안에서 모두 건강하시고 어서 금의 환향하십시오.

떠날 때 품었던 큰 뜻, 부디 이루시고 조국의 이름을 빛내주시며 어디서나 칭찬받고 사랑받는 성도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고국의 형제 자매에게 소식을 전해 주십시오.

멀리 이역의 지붕밑에서 보고 듣고 느낀 사업들을 날날이 적어 보내 주십시오.

새해에는 더 큰 뜻을 이루시고 주 안에서 내내 평안하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미년 정월 고국에서

주: 무엇이든 접하고 싶은 소식이있으면 이"멀리있는 성도들"란을 이용해 주시고, 성도의 벗을 계속해서 보시기를 원하시면 성도의 벗 편집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집실 주소: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編輯後記

출발점을 떠나 열심히 트랙을 달리다보면 승부의 의식보다는 달리던 힘의 타력에 밀리는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때도 있다. 금년들어 열두권의 성도의 벗을 만들어야 하는 과제를 그저 담담한 의무같은 것으로만 받아드리기가 싫어서 야기다 깊은 애착 같은 걸 심어둔다. 준비할 때의 오념은 막상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허전함과 패배감을 안겨주고 그래서 영원을 두고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가 보다고 생각은 해보나 그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의 결핍이 너무 분명하잖. 느껴진다. "성도의 벗"이 너의 벗이면서 또한 나의 벗임을 똑바로 얘기해 두고 싶다. (인)

따닥, 따닥, 따닥

따다닥, 따다닥, 따다닥

편집이 끝난 원고가 인쇄실에 넘어가 초음속(?)의 빠른 속도로 타이프되어 나갈 때 그 소리는 마치 쌓여있던 피토를 후련하게 씻어주는 흐뭇한 교향악처럼 들린다.

이번호에서도 다채로운 내용을 만재하여 보려고 애를 썼었다. 그러나 성도의 벗을 읽으려는 성도들의 좋은 읽을거리가 될 수 있을런지는 의문이다. 다만 신앙생활을 살찌울 영양소가 될만한 것들을 고루 모아 보았으니 하나 하나 음미하시고 믿음을 키우는 필수적인 밑거름으로 삼아 성도의 벗과 더불어 발전하시길 바란다. (달)

성도의 벗

發行人 스펜서 제이·팔마

發行人補 車 鍾 煥

編輯人 韓 仁 相

發行所 서울特別市鍾路區清雲洞7

印刷所 末日聖徒 예수 그리스도 敎會 韓國宣敎本部